

선지식이 일러주는 행복의 길

‘가장 행복한 공부’

청화 스님
시공사 / 9천원

나옵니다만, 사실 우리 중생들은 누구나 무명병(無明病)에 걸려 있습니다. 한국병이나 미국병이나 모두가 다 근본적으로 무명병입니다.”고 가장 행복한 공부가 참선인 이유를 설명해 준다.

이 책이 어려운 참선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면서도 책장이 술술 넘어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스님의 법문 어투를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치 앞에서 스님을 친견하고 가르침을 직접 듣는 듯하다. 가령 “참선을 잘 하면 내가 없고, 내가 없고 미운 사람 좋은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내일이 좋은 날이고 때때로 좋은 때입니다. 모든 시비를 떠나 순수 정기인 부처님만 생각하는 것이 참선에 임하는 바른 마음 자세입니다.”는 식이다.

이 책에서 스님이 강조하는 또 하나가 바로 ‘하심(下心)’이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항상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모든일이 순리대로 풀리는 지름길이라고 가르침을 주신다.

이따금 옛 이야기처럼 들려주는 토글 수행담에서는 혹독하게 자신을 몰아갔던 스님의 치열한 구도정신을 느낄 수 있다. 1천미터 이상 되는 고지에서 추운 겨울에 장작을 절약하기 위해 하루 세 개비만 때면서 죽을 각오로 수행했다는 대목은 책을 덮고서도 한참동안 긴 여운과 감동으로 남는다.

스님의 법문 중 10편을 뽑아 정리한 이 책은 대안사 법회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제 1부 ‘마음의 고향’을 비롯해 젊은 불자들에게 설법한 제 2부 ‘젊은 불교를 위하여’, 동양계 곁에서 정진중인 스님들에게 하신 제 3부 ‘정진’ 등으로 구성돼 있다.

관련기사 24면 '지상백고'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대중들과 함께 참선 삼매에 든 청화 스님(앞줄 맨 왼쪽).

“올바른 참선·염불수행이 無明 벗게 해” 법문 가려 정리, 가르침 곁에서 듣는 듯

지혜가 생겨 올바른 참선 공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결론적으로 스님은 ‘조사선(祖師禪)과 염불선(念佛禪)’이 돼야 올바른 참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또 스님은 “참선공부가 어째서 행복한가 하면 그것은 우리의 가장 오래되고 근본적인 병을 고칠 수 있는 공부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한국병이나 무슨 병이니하는 ‘병’ 소리가 많이

40년간 하루도 바닥에 등을 대고 눕지 않는 ‘장좌불와(長坐不臥)’의 수행, 하루 한끼만의 식사, 그리고 철저한 지계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이 시대의 선지식 청화 스님(곡성 성륜사 주시·조계종 원로회원의 감로 법문들이 한 권의 책으로 묶여져 나왔다.

청화 스님은 80 고령에도 불구하고 대중법문에 나섰다 아무래도 듣는 대중은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고자하는 수많은 이들이 접할 수 있었던 것은 법문 테이프와 보시용 소책자다. 스님이 드러내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아 한사코 대중 출판을 만류해 스님의 법문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은 녹음테이프를 풀어 원하는 사람들에게 글로 유포하기도 했다. 급기야 상황이 이렇게까지 이르자 스님의 주유같은 가르침을 공유하지는 않(?)들이 스님 설득에 나서 만들어 낸 결과물이 바로 <가장 행복한 공부>다.

무한한 인내를 요하는 공부란게 결코 즐거운 일일 수만은 없을텐데 세상에 과연 행복한 공부가 존재할까. 청화 스님은 이 화두의 답을 이 책에서 참다운 참선과 염불이라고 제시한다. 스님은 감수(感受), 상상(想像), 의지(意志), 의식하는 것 모두가 다 비어있고 분명히 느껴야 참다운 반야

‘대방광불화엄경’

거부 스님 역주
운주사 / 전 8권 20만원

前 수석사 승가대학 강주 거부(巨美) 스님(표창사 무이정사)이 공부하는 학인들을 위해 최근 방대한 <화엄경> 원문을 알기 쉽게 풀어 놓은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전 8권)을 출간했다.

<대방광불화엄경>은 전통강원본인 80권본 <화엄경>과 39품을 합해 원문에 한글로 토를 달고 자세한 해설을 붙여 놓아 전통강원 교육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꾸며졌다. 특히 이 책은 원문과 번역이 한 장에 함께 실려 있어 한문에 약한 신세대 학인들과 불자들도 바로 대조해 가며 읽기 편하게 구성돼 있다. 그래서 방대한 양과 어려운 한문에 압도돼 그동안 공부하고 싶어도 엄두를 내지 못한 이들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책이다.

역자인 거부 스님이 92년부터 컴퓨터로 한자를



혼자서도 강독할 수 있는 화엄경

원문·역문 같은 장에... 대조해 읽기 편해

직접 만들어 가며 10년동안 번역 작업을 해왔다고 하니 수행자이자 학자적인 인내와 고집에 고개가 절로 숙여진다. 거부스님은 “<화엄경>은 강원에서도 전과정을 강의하지 못할 정도로 내용이 방대한 경전”이라며 “하지만 모든 불경의 결론을 총 집약한 중요한 경전으로 혼자라도 학인들이나 불자들이 읽으면서 인연 맺기를 바란다”고 밝힌다.

‘선원제전집도서 주해’

법장 스님 역음
동국역경원 / 2만원



‘선원제전집도서 주해’

법장 스님 역음
동국역경원 / 2만원

우리말로 쉽게 풀어 쓴 ‘都序’

<선원제전집도서 주해(禪源諸詮集都序註解)>는 문장 해독이 까다로운 것으로 유명한 <선원제전집>의 ‘도서(都序)’를 선운사 강주 법장 스님이 우리말로 풀어쓴 책이다. 조선 중기 이후 강원의 소의 경전 중 하나로 채택돼 지금도 꾸준히 읽고 있는 ‘도서’를 문법적인 해설을 곁들여 읽기 쉽게 번역했다. 또 각 장마다 핵심적인 내용을 간추린 ‘줄거리(줄거리)’를 덧붙여 놓아 내용이 한 눈에 들어온다.

<선원제전집>은 ‘선과 교의 본 뜻은 틀이 아니다’라는 선교일치

(禪教一致)를 제창하기 위해 당나라 화엄종 제5조 종밀 스님(宗密, 780~840)이 지은 것이다. 이 책은 예로부터 전해 오는 선(禪)의 어구와 계승 등을 모은 100권이 넘는 문헌이었으나, 현재는 서문에 해당되는 ‘도서’ 상하 두 권만 전한다. ‘도서’에는 <선원제전집>의 편찬 배경과 선의 참된 근원, 선정의 필요성, 종파의 특성, 선의 종류와 보리달마의 선, 선교일치의 필요성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책 구입은 선운사 강원역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063)561-1475. 여수경 기자 snoopy@buddhapia.com

새로나온 책



큰스님들 선문답 160편 모아

‘순가락은 밥맛을 모른다’

혜범 역음
북갤럽 / 8천원

달마와 혜능, 마조, 경허 스님 등 깨달음을 전하는 큰스님들이 남긴 행적들과 선(禪)문답을 가려담은 <순가락은 밥맛을 모른다>가 나왔다. 자신을 해탈하게 해 달라고 하는 도신에게 ‘아무도 구속한 사람 없는데 무슨 해탈을 구하냐’고 반문한 승찬 스님, 불법이 무엇이나고 묻는 사람들에게 ‘차나 한잔 마시라’고 한 조주 스님... 선지식들의 일화가 가득 담겨 있어 읽을 거리가 풍부하다. ‘왜 내게 묻는가’, ‘잘고 있는 부처’, ‘열린 문을 못 보는구나’ 등 3개 장으로 나뉜 이 책에 실려 있는 160여편의 선문답 160여개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화두로 삼을만한 것들이다.



대중강의 내용 묶어

‘달라이라마의 반야심경’

텐진 가초 지음 / 주민황 옮김
무우수 / 8천5백원

<반야심경>은 세계 어느곳에서나 사찰의식에서 빠지지 않고 암송되는 가장 중요한 불교경전중의 하나다. 우리 자신이나 사물들의 진정한 본성에 대해 간결하고도 직접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는 불교지혜의 정수이기 때문이다. 최근 달라이라마가 캘리포니아의 마운틴뷰에서 많은 청중들에게 차근차근 명료한 언어로 연속 강연한 내용을 묶은 <달라이라마의 반야심경>은 불교의 기본교리와 <반야심경>을 현대적으로 쉽게 해설해 놓았다. 1부 ‘불교전반에 대한 이해’를 비롯해 제 2부에서는 <반야심경>의 전문을 수록하고 불교용어들을 이해하기 쉽게 재해석해 놓았다.



진실로 부유한 사람은?

‘마음부자’

자원 스님 지음
운주사 / 7천5백원

행복한 사람이 되는 조건은 다양하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 한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몸이 건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불교 신앙 대중화 운동을 펼치고 있는 자원 스님(금강정토사)은 행복하기 위한 또 다른 조건들을 제시한다.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유한 듯 하지만 사실은 가난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한 듯 하지만 사실은 부유하다’라는 식의 바로 마음 부자가 되는 법이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 훌륭한 도반을 만난 사람, 발보리심을 내는 사람 등이 스님이 제시하는 마음 부자인 것이다. 이 책에는 불교 경전에 근거한 마음 부자가 되는 법 114가지가 소개돼 있다.

금주의 베스트북 10

책방 역시아문 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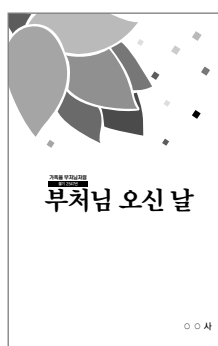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화	틱 닷 한	명진출판사
2	힐	틱 닷 한	명진출판사
3	능엄주해의	전 수 태	운 주 사
4	천하에 내가 사랑하지 않는...	김 재 경	마담닐은집
5	통일법요집	편 집 부	조계종출판사
6	미소짓는 발걸음	틱 닷 한	열 립 원
7	주머니속의 조약돌	틱 닷 한	열 립 원
8	절간이야기	오현스님	고요아침
9	물지 않는 질문	현웅스님	민 족 사
10	관음신앙관음기도법	김 현 준	효 립

도서 안내: (02) 737-0695

인터넷·전화 도서 주문
yosiamun.com
책방 역시아문 전화: (02)737-0695

부처님 오신 날 기념책자·특집사보 발간

불교설법전서 (1~8권)



기념책자 견본

- 불축법요식순
- 부처님은 누구인가?
- 부처님 전생이야기
- 부처님의 탄생과 의미
- 부처님의 성도와 열반
- 부처님 오신 날 왜 연등불을 밝히나?

규격 신국문 | 분량 28쪽 (표지포함)



특집사보 견본

- 불축법원문
- 부처님의 탄생과그 의미
- 부처님 전생이야기
- 만화로 보는 불교설화
- 재미있는 교리공부
- 불교환경운동과수행
- 불교와의 인연이야기
- 불교상식등

규격 4 x 6배판 (16절) | 분량 36쪽 (표지포함)

부처님 오신 날 기념책자

사찰에서 행사 때마다 만들어 오던 전단은 경제적인 부담, 준비하는 번거로움, 거기에다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설법연구원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초파일 기념책자를 만들어 행사용 팸플릿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념책자는 부처님 오신 날 사찰을 찾는 신도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쉽게 읽고 부처님 오신 뜻을 세길 수 있도록 알차게 꾸몄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특집사보

매월 발간해 오고 있는 '설법'지에 초파일 특집 지면을 할애하여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각 사찰의 특성에 맞게 내용을 구성하여 사보 겸 초파일 행사용 책자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립니다.

환희로운 부처님 오신 날!

설법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초파일 특집사보를 통해 우리 곁에 오신 부처님의 뜻을 널리 펴시다.

“초파일 기간 특별 할인 실시”

행사·교리·불사·비유설화·시사 등의 주제별로 항목을 분류, 합본 제작하여 발간된 책. <불교설법전서>는 스님과 법사님의 필독서로 유용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1권(600쪽)39만원 5권(720쪽)44만원
2권(666쪽)41만원 6권(816쪽)45만원
3권(622쪽)44만원 7권(894쪽)45만원
4권(736쪽)44만원 8권(736쪽)45만원

*9권은 출간될 예정입니다.

■ 도서출판 솔바람의 책들

- 불교설법전서
설법연구원 편 12권 30,000~50,000원
- 참회경전
도법 편 3,000원
- 아함경으로 배우는 불교
만영규 지음 7,000원
- 천수경
윤오연 편 6,000원
- 신묘장구대다라니 강해
임근동 지음 10,000원
- 불사 및 기도안내문 모음집
설법연구원 편 10,000원
- 불교사경집
설법연구원 편
예불·반야심경 3,000원
지장경 5,000원
- 불교지도자론 I
설법연구원 편 20,000원
- 뜻으로 읽는 금강경
송완우 역 12,000원
- 실험처럼 살아라
메카 최민지 지음·천우기 옮김(문발간예정)
- 마음을 밝히는 60가지 이야기
김정연·방정원 공저(문발간예정)

기념책자	단위 원					
	100부	300부	500부	1,000부	2,000부	3,000부
	65,000	195,000	312,500	600,000	1,000,000	1,200,000
특집사보	단위 원					
	100부	200부	300부	400부	500부	1,000부
	156,000	234,000	351,000	455,000	559,000	948,000

* 특집사보와 기념책자 표지에는 사찰명, 주소, 주지스님 말씀, 사찰소식, 초파일 행사식순 등을 실을 수 있습니다.